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47화)

"청화 큰스님"

〈출전 : 청화 큰스님 말씀중에 발췌〉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KAL기 사건 16년

어둠 속 진실의 송곳

11월 29일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저지른 테러라고 발표한 이 사건이 이제와 새삼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혹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유족들은 아직도 이 사건을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며 무려 33가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http://www.kal858.or.kr). 최근에는 이런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까지 출간되었고, 당시 수사관들이 출판사와 저자를 고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무리 간단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며 더욱이 테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범인을 국내로 이송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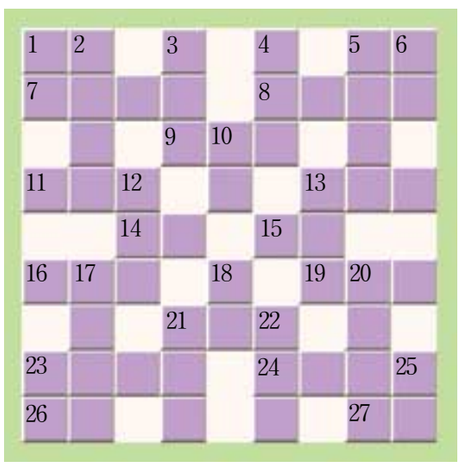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른 지혜의 길이라는 것은 근본불교 경전 곳곳에 등장하는 상식이다. 유가족의 고통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는 것은 수사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다. <유행경>에서도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며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수지 김 사건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올라가는 것은 선재의 심정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소송이 수사관들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위선적인 행위라면 당연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알고 짐짓 거짓말을 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참회의 마음이 없으면 이 같은 사람은 악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사경>의 말씀이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 튀어나오듯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언젠가 인정받는 것이 어디 능력뿐이겠는가? 사형선고를 받은 범인이 '국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받는 현실에서 진실의 송곳이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올 것임을 선재는 믿는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하늘 위 5. 하늘에서 내리는 꽃 7.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내놓은 재산 8. 도솔천에 왕생하는 것 9. 물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 11. 중생대 쥐라기에 살았던 조류의 시조 13. 은하를 강물에 비유해 이르는 말. 미리내 14. 겨울동안 먹을 김치, 깍두기, 동치미 따위를 담그는 일 또는 담근 음식 15. 걸림과 장애가 없음 16. 생물체의 세포를 이루는 기초 물질 19. 속세와는 다른 좋은 세계, 별천지 21.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 23. 근원과 현실의 문제 즉 이(理)판과 사(事)판을 함께 어우른 말 24. 음양과 만물을 생성변화 시키는 5가지 원소 26. 단체를 해산함 27. 계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스승.

세로

1. 천지조화의 기밀 2. 서로서로 도움 3. 농업에서 생산한 것 4. 온도를 재는 기구 5. 하늘 위 하늘 아래 6. 태란습화 4생의 하나로 의탁한데 없이 스스로 홀연히 생겨남 10. 시주의 은혜 12. 그림이나 글씨 등을 나무나 돌 따위에 새기는 일 13.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17.형편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 18.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반대는 악업 20. 신라 때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내린 5가지 계율 21.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 22.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전각 23. 이익과 손해 25. 일을 거행함.

〈449호 「상식퍼즐」 정답〉

개	오		다		천		연	화
동	체	대	비		지	수	화	풍
	투		장	본	인		왕	
고	지	기		심		전	생	담
		울	상		폐	문		
굴	삭	기		부		가	요	제
	발		공	양	종		익	
처	염	상	정		무	계	중	심
분	의		가		소		생	사

2004년을 준비하는 불자님들의 현명한 선택…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전각 수인(手印) – 관세음보살 42수인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전각 금강경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석불(石佛)
▶ 규격 : 310mm × 310mm 13매
▶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 상호란 : 31cm × 7cm
▶ 사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불자들의 필수품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출시!!
매일매일 음력,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되어 편리한 불자들의 신행용품.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불교 다이어리북에서는 불교의 지혜가 솔솔묻어 나옵니다.

2004년 불교 다이어리 북
▶ 색상 : 곤색, 자주, 회색 ▶ 단체명 고급인쇄 –100권 이상
▶ 가격 : 각권 7,000원